

#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강산이 네 번 바뀔 만큼 오래되었지만 잊지 않는 대학교 1학년 교양과목 <철학>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한 시간 동안 B4 용지 앞뒤에 성장과정, 집안환경, 성격, 장래희망 등에 대해 꽤 진지하게 답안지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끔 교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짐작해 보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삶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최기형 교감선생님

수년 전, 서울대학교 수시전형에 제출할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께서 부탁하기에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학생의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쓸 거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보기 드물게 학구적이고 겸손하면서 예의바른 학생이었는데 스토리를 엮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와 장시간 통화하고, 학생과 면담하면서 그 학생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인성, 학습태도, 발전가능성 등을 알게 되어 진솔하게 추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무난히 서울대학교 공과대에 합격하였고,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 학생의 아버지는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중학교 중퇴 후 상경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다 남동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여 학생을 낳아 기르게 되었다.

둘.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동차가 없어 유원지나 놀이동산보다는 가까운 화도진공원, 수봉공원, 자유공원 등에 자주 갔고,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마니산, 북한산, 도봉산 등을 다니며 체험학습을 하게 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체득하도록 하였다.

셋. 학원에 보낼 형편도 못되고 공부하라고 채근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느 때든 보고 싶으면 보라고 어릴 때부터 학생의 손이 닿는 집안 곳곳에 책을 놓아 주었다.

넷. 본교에 입학한 후 매일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귀가했는데,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었다 보면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배우는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몸에 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다섯.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모님을 무한히 존경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과는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평범한 말이지만, 유전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과선택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할 때, 우스갯소리로 ‘너를 알려면 네 부모님을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학이나 예체능에는 재능이 없지만 인문학에는 흥미가 있고 농사꾼인 부모님으로부터 근면함과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업계승’이 부모에게는 자랑거리이고 자식에게는 안정된 진로선택이라고 합니다. 간혹 돌연변이도 있겠지만 대개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 흥미나 재능도 유사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진로진학지도’의 기본은 학생의 흥미와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탐색과 학과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종 검사자료의 수치들이 이용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인생)’은 가정환경, 성장배경, 인성 등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될 것입니다. 위에 소개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반듯한 인성의 형성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방식 일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좀 더 돋보였습니다. 이 점이 학생의 자존감을 키우고 학업성취도를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잠시나마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며,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잠재된 역량을 찾아 꿈을 키우기 바랍니다. ㉮